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AUGUST 2023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36



7월 Sunset Valley Golf 대회

회원 30명이 7월13일 Sunset Valley Golf Course에서 만났습니다. 포트리어서 서쪽으로 약 40-50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울창한 삼림과 짙은 초록색으로 가슴이 탁 트이는 좋은 골프장이었습니다. 더운 날씨(90-100도)가 예보되어 있어서 가족들이 걱정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다행히 공을 치기에는 딱 좋은 여름 날씨였습니다.

이번에는 2인1조가 되어 좋은 공을 골라서 치는 방식(Two Person Scramble Format)을 처음 시도했는데, 모두가 쉽게 적응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골프란게 잘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란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그런 면에서 모두가 부담 없이 편하게 공들을 잘 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프장에서는 간혹 칠면조 거북이 여우 토끼 사슴 같은 친구들을 보곤 했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중간 정도 크기의 흑곰을 만났습

니다. 우리를 보고는 슬금슬금 덩쿨숲으로 들어갔는데, 곰을 보기만 하다가 그만 넓은 풀밭에서 사진을 못찍은게 못내 아쉬웠습니다. 흑곰은 회색곰과는 달리 사납거나 공격성이 별로 없어서 자못 상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한국인들에게는 단군의 어머니라는 좋은 이미지도 갖고 있지요. 자연 상태로는 보기 드문 곰을 만나서 다소 놀라긴했지만, 아무튼 골든클럽에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흠뻑 흘린 후에 마신 맥주는 다른 때보다 몇배나 더 맛있었고, 뷔페 음식도 입맛대로 골라 먹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 칠거라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다짐도 해보고 또 초록색 자연을 만끽하면서 모두가 웃고 즐긴 하루였습니다.

오순문(사대68)

8월 골프대회 안내

올해 5번째 골프대회를 NY의 Wallkill Golf Club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대회때에 회원들의 평가가 좋아서 다시 한번 방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스가 잘 관리되어 있고 레이아웃이 흠마다 특색 있게 배치되어 있어서 회원들이 좋아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상식을 진행하는 클럽하우스와 음식도 인근 골프장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이 뉴욕에서 다소 먼 관계로 15인승 밴을 플러싱에서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신청하실때 밴 동승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인원 확정 /조편성 / 차량준비 등을 위하여 등록을 8월 3일 이전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날짜: 8월 10일 (목)

시간: 오전 11시 Shotgun tee off (10시까지 도착바랍니다.)

디너 및 시상식: 4시 Golf Club Lounge

골프장 주소: Wallkill Golf Club

40 Sands Rd, Middletown, NY 10941

회비: \$120

등록: 김정필 (jaypkim@keiusa.com / (201)965-7759

김병순 (kbs8717@gmail.com / (703) 407-4928

8월 야유회 안내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

뉴스레터로 공지한 것 처럼 회원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피크닉을 준비하였습니다. 카노피 아래에 바베큐와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푸짐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있으니 손주들도 함께 데리고 오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음식과 상품 등 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석인원 수를 미리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라오케 경연과 간단한 게임을 함께 하며 경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8월 17일 목요일 11시 - 3시

장소: Rockland State Park, parking field #2

문의: 김정필 (201-965-7759)

회비: 없음



Well Dying 을 위한 세미나 개최

진정한 웰다잉(Well Dying)은 웰리빙(Well Living)을 위함이다. 삶과 죽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거울로서 같은 모습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면 하루하루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길인 것을 알고 오늘,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지혜라고 할 수 있다.

Well Dying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삶의 질을 극대화하며 개인과 사회가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Well Dying의 교육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모시고 화상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2023년 8월 16일 (수) 오후 8시-9시

강 사: 김충정 씨(Family Touch 부원장/상대 64학번)
Zoom 세미나 입장 방법: 추후공지

문의: 김정필 골든클럽 사무총장: (201)965-7759

정해민 상임고문 (551)574-2015

이준행 명예회장님 근황

요즘도 하체가 부실하시어 상주 집사와 간병인과 함께 생활하시며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wheelchair에 의존하신다. 하지만 정상생활로의 욕구가 대단하시다. Long Island지역의 최고령이신 이준행 선장께서는 wheelchair를 이용해 motor boat에 승선하시면 예전과 다름없이 뱃길을 따라 바다낚시터로 배를 몰고 다니신다.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이 회장의 건강 회복 진척과 강렬한 의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컴퓨터 토요일의 소식: 2023년 6월 27일



양인회 컴퓨터 전도사 서거 이후 지역별, 전문 연역별로 통합되었던 골든클럽 컴퓨터 반이 두 분의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화요일, 토요일 두 반으로 분리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토요일 강사는 시카고에 사시는 분 (박혜원: 2004 정보문화사 “마음을 움직이는 프레젠테이션” 저자)인데 Power Point를 주제로 줌강의를 계속한 지 1년이 넘었다. 강사는 물론 회원끼리도 영상으로만 대하다가 오래간 만에 대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박혜원 강사께서 800마일을 운전하여 뉴욕을 방문하는 시간을 맞추어 컴퓨터 토요일 단합대회를 갖게된 것이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빠진 분들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모임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면을 통하여 토요일 안내를 드리고 싶다. 강의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10-12시, 강의내용은 PowerPoint detail이다. 매월 첫 주 토요일은 복습 및 휴식을 위하여 휴강을 한다. 회원 대부분이 모니터 2개를 사용하여 강의와 실습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2시간 강의를 끝나면 녹음된 내용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복습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결석했던 분에게도 catch up하는 필수 수단이 된다. 사소한 질문도 일일이 응답해주는 배려 때문에 초보자 수준에서도 어려움 없이 강의를 따라갈 수 있다. Power Point는 흔히들 presentation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데 Photo Shop, Video editing까지 응용범위가 넓어서 초보에서 고급수준까지 배워야 할 내용이 무궁무진하다.

사자성어에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는 용어가 있다. 손아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 말라는 뜻이다. 박혜원 강사가 젊은 엘리트여서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회원 대부분이 senior인데 Zoom 강의실 학습 열기는 참으로 대단하다. 관심있으신 여러분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다. 연락처는 우규환(201-566-3665) 또는 남종현(201-388-3787)이다.

현재의 토요일 출석인원은 다음과 같다: 김동환, 김찬희, 남종현, 방갑순, 배옥화, 손옥화, 안미상, 안인옥, 우규환, 유재원, 윤종숙, 이선근, 이은자, 이종대, 전명혜, 정해민, 조정원, 최복자, 최성남, 최종례 (가나다 순)

띠 동갑 골프 이야기

■ 천병수(공대 70)

지난 겨울 골든클럽 West Palm Beach, Florida 겨울 골프여행 이야기이다. 어느날 골프장 Boca Green G/C 씬이 짜여지길 권정덕(의대 58), 오유섭(의대 58), 천병수(공대 70), 이영범(공대 71) 이었다. 첫 티를(White Tee) 치고 나서 공을 찾아 나서는데 당연히 멀리 친 공은 후배 공인 줄 알았는데 선배님(오유섭) 것이었다. 첫 샷이라 어찌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지만 이후 이어지는 홀중 거의 절반 가까이 후배 공을 제친 장타 실력이었다. 거기다 2nd shot은 웬만하면 green 에 직접 올리려는 의지와 함께 장타와 정확성을 가진 오선배님 실력이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권선배님의 스윙여유와 거리도 대단하였다. 12년 나이 차가 나는 띠동갑이면 당연히 뭔가 차이가 나도 나와 하는데 그렇지 않아 혼돈이 왔고 결국 겸손의 미덕을 다시 배워야 했다.

필자는 전부터 70대 까지 골프 칠 수 있다면 큰 복으로 알고 살아 왔는데 이제 80대가 되어도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두 선배님은 같은 중, 고등학교 동기이시고 대학도 의대동기에 뉴욕까지 이어진 깊은 인연을 갖고 있었고, 두 후배도 같은 중, 고등학교 동기인데다 대학도 같은 공대에 뉴욕생활이 40년이 넘으니 서로 절친이다. 우연치고는 선배 절친, 후배 절친끼리 띠 동갑 골프 씬이 되어 치게 되었다. 지난 6월 어느날 뉴저지 소재 Sunset Valley 에서 다시 모여 겨울의 감격을 되새기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서로 다시 만나 골프로 즐거운 하루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두 선배님의 건강, 골프, 인생에 대한 경험 및 고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그중 골프를 늦은 나이까지 즐기게 되면 Active Life 가 Non-Golfer 에 비하여 5년 이상 차이가 나고, 골프와 연관하여 Social Life 도 다양해지며 여러 친구도 사귀게 되어 은퇴생활이 윤택 해진다고.

참고로 필자가 2021년도에 발간된 골든클럽 회원록 기준, 분석하면 ;

- 총인원 108 명중 중간 학년이 61 학년이고
- 전체 골퍼인원은 74 명(68%)에
- 중간학년 61학년이하 선배골퍼는 42명(39%) 에 달한다.

이를 분석하면 골든클럽이 주로 고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뉴욕 어느 단체에 비하더라도 나이에 비해 Active Life 를 골프로써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골든클럽 골프모임에 지금까지 꾸준히 참석 하시는 90대 이상이신 진봉일(공대 50), 임호순(공대 52), 김익성(공대 53), 김영덕(공대 53) 등 고참 선배들께서는 오래 골프와 함께 건강을 유지하시는 모습이 귀감이 되고 존경스럽다.

필자는 70대에 골든클럽에 늦게나마 가입하여 여러 선배들이 보여주신 삶의 지혜와 해안에 접할 수 있음에 이 글로 감사를 표하고 싶다. 올 여름이 가기 전 뉴저지 Dalton G/C에서 다시 띠 동갑 골프 잔치에 초대 받았다.

퇴임인사

■ 43/44대 동창회장 김영천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문 여러분,

저는 이제 2년간 동창회 회장직을 맡은 역할을 마치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고 또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인해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영광과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에 모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동창회 회장으로서,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동문들의 연결과 소통을 강화하고 동창들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참여로 인해 이 목표를 조금이나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동문님들과의 소중한 만남의 순간들과 훌륭한 행사들은 우리의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었고, 동창회의 의미를 강화시켜주었습니다.

동창회 회장으로 일한 동안,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에 관한 동문상호 간의 관심과 우애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불우한 동문들의 회복을 위해 서로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동문들의 모습은 정

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더욱 깊은 우정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창회 회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에 큰 보탬이 되었으며, 동창회 회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창회가 더욱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동창회에서 만남을 이어나가며 새로운 추억을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렬한 동창인, 김영천



취임인사

■ 45대 동창회장 연영재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문 여러분,

새롭게 동창회장을 맡게 된 공대 74학번 연영재입니다. 뉴욕지역 동창회는 김영천 전임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들의 훌륭하신 리더쉽과 동문 여러분의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최근 코비드-19로 인하여 사회의 모든 활동과 동창회 모임이 심각하게 제약받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침체된 기간을 지내고나서 동창회의 활동이 제모습을 찾아가며 동창회 위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라는 막중한 소임을 저에게 맡겨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뉴욕지역 동문님들의 “참여”와 “화합”을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뉴욕지역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친목과 화합하는 동창회

우리 서울대인들은 젊었을때 공부 잘했다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너무나 다른 지식, 경험, 사상, 정치이념, 종교관 등을 갖고 있습니다. 동문 상호간에 자신을 주장하며 우월감을 나타내기 보다는 자신이 낮아지기를 힘쓰며 겸손과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며 포용과 용서와 화합 또한 사랑하고 격려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공간에서 소통하고 대화하며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젊은 동문의 영입

모교동창회와 미주동창회 그리고 우리 뉴욕지역 동창회의 심각한 문제점은 젊은 동문님들이 동창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 선배동문님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동문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동문님들의 숭선수범을 부탁드리며 동창회내에 차세대위원회를 신설하여 젊은 동문의 영입에 동창회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봉사활동

똑똑하고 잘났다는 서울대 출신들이 뉴욕지역에서 살아가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특히 뉴욕지역 한국교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생각해 보면 수치스러움이 많습니다. 교민사회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이름으로 불우이웃돕기, 자선기관 지원, 장학사업, 문화사업, 지식 정보 제공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동창회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동문님 여러분과 가족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집 마나님의 꿈

■ 윤선구 (치대61)

우리 첫 손녀는 2003년생이다. 큰 아들이 어느 날 제 엄마한테 전화 해서 “Mom, we are coming home!”이라 했다고 집사람이 말해서 우리는 저녁 먹으러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막상 왔을 때 보니 커다란 백을 2개나 들고 왔다. 말 하자면 집으로 이사를 온 셈이다. 그때는 두 아이들 모두가 같은 대학에서 일했고 그래서 신혼생활을 대학 기숙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글썄, 이 두 놈이 집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살게 되었는데 왜 왔는가 물었더니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결혼하면 아이를 갖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때 나는 개업을 일찍 끝내고 다른 지역에 가서 좀 있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을 때였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같이 살다가 첫 손녀를 얻게 되었고 참으로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창조주의 오묘하심을 깊이 깊이 느끼게 되며 며느리아에게 고마움을 아주 깊이 갖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며느리에게 나의 오피스를 넘기고 나하고 집사람 둘이서 손녀를 돌보며 별별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다 그런데 그때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있기 위하여 U.S. Government와 얘기하던 것이 좋은 결론으로 이루어져서 그 쪽에서는 사월까지 오라고 하는데 손녀 생일이 칠월이라 생일잔치는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미루고 미루어 칠월에 그쪽으로 갔다. 아들놈은 왜 가느냐 하고 며느리는 오피스 운영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빨리 오라고 하는 가운데 그저 대강대강 마무리하

고 테너플라이를 떠났다.

그런데 어렵게 찾아간 곳이 해발 8000 피트 고지대라서 밥은 압력 밥솥으로만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보통 밥솥이므로 한 두 어 달 동안은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밤 낮의 기온 차이가 엄청 심해서 밤에는 꿈쩍 못했고 환자는 얼마나 많은 지 하루에 50 명에서 60명을 볼 때가 많았다. 그러나 정작 힘든 것은 요놈의 손녀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다. 기어 다닐 때 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하루 종일 그 애하고 지내다가 멀리 떨어지니 내가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기고 또 그곳의 풍토병으로 두어 번 죽을 고비 넘기고 나니 손녀가 더 그리워졌다. 그런데 마침 그때 딸아이가 쌍둥이를 출산했으며 아무래도 이제는 다시 아이들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테너플라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손녀딸은 대학 삼 학년이 되었고 쌍둥이는 고등학교 생이 되었다 그리고 손녀는 지금 서부에서 summer job을 갖고 일을 한다. 이제는 그 손녀가 어른이 된 것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도 결혼을 안 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린다. 그리고 우리 마나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손녀의 결혼 문제를 갖고 기도를 시작했다. “결혼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도 그 기도 소리를 들으니 덩 달아서 같이 기도한다. 또 기회만 되면 손녀에게 부탁한다.

“네 결혼식에 우리는 꼭 참석한다.”고 그리고 기도의 끝말은 “손녀 결혼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 총회 및 이사회

■ 김병순 (사회82)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Double Tree Hotel에서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 총회 및 이사회를 가졌다.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총회/이사회 및 음악회를 진행하였다. 금영천 회장이 퇴임하고 연영재 동문이 새로운 회장으로 정식 인준을 받고 더불어김병순 동문이 감사로 인준을 받는 자리였다. 연영재 회장이 원대한 사업계획 (9/23 야유회, 10/12 추계골프대회, 12/2 송년의 밤)과 집행부조직 (IT 위원회, 80년대 학번 담당 위원 신설 등)을 발표하였다.



지난 44대 회기 기간의 재정결산보고 후 감사 진행 시 은행 잔고 등 서류를 직접 확인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고 앞으로 감사 업무 수행 시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연영재 신입회장은 뉴욕지역 동창회의 은행계좌로 회

장이 관할하는 구좌 이외에 골든 클럽과 약대 동문이 별도로 관리하는 은행구좌에 대한 추후 처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전구회원 농장 방문기-“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었던 꿈”

■ 여주영 (명예회원)

뉴저지 포트리에서 남단으로 차를 타고 1시간 가량 달리면 앞이 탁 트이고 사방이 푸르른 농장 지역 몬로 타운십이 나온다. 이 지역을 조금 돌다 보면 농대 출신의 이전구 회원이 지난해 마련한 노후의 쉼터? 아님 노후의 놀이터?가 눈 안에 들어온다. 그가 어릴 적부터 언젠가는 꼭 한 번 해보고 싶었던 꿈을 이제라도 이뤄보겠다는 일념으로 과감하게 매입한 농장이다.

4000스퀘어피트에 이르는 지하 포함 3층짜리 주택이 달린, 면적 35에이커에 이르는 땅이다. 이 가운데 농사지을 수 있는 곳은 10에이커, 집 앞면 5에이커에는 100그루 정도의 포도나무, 뒷면 5에이커에는 감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등등이 있는데 오랫동안 관리가 잘 안 돼있는 상태이고 그 외 25에이커 땅은 모두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누가 보아도 일거리 투성이... 모두 손이 가야 할 일들 뿐이다.

그런데 80대 나이의 이전구 회원이 왜 뒤늦게 이런 일을 벌였는지 궁금하다. 남들은 모두 노후에 일거리를 없앴다고 집도 줄이고 편한 곳으로 이사가고 야단들인데, 무슨 연유로 이런 큰 규모의 농장을 산 것일까? 그 용기와 투지가 정말 놀랍고 가상하기(?) 짝이 없다. 어릴 때부터 꿈이 농장을 하는 것이어서 농대도 들어가고 했지만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고 아이들 키우고 하느라고 못했는데, 마침 할 기회가 생겨 일을 저질렀다며 후회는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막상 해보니 일거리, 문제거리가 정말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하루밤만 자고 나면 불쑥 불쑥 커져있는 잡초와의 싸움, 도마도, 오이, 고추, 오이, 호박 등이 순이 나오거나 열매가 조금이라도 달린다 싶으면 바로 잘라 먹어버리는 사슴과의 싸움, 새떼와 곤충, 벌레들과의 싸움까지... 농장에서의 하루가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일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는 이미 포이즌 아이비 같은 풀독, 틱(TICK) 같은 벌레에 물려 고생은 사서 하고 있다. 그래도 그는 노후에 소일거리 있어 좋고, 이것 저것 하다보면 거기서 얻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즐거워한다.

홍종만 회장 홍예경씨 부부, 조달훈 박사과 조승자씨 부부, 손경택 회장, 그리고 나, 6명이 이곳을 찾은 것은 지난 10일 오후 12시 반, 우리는 도착 전부터 입구까지 나와 우리를 반겨준 이전구 회원을 따라 집안에 들어서니 역시 기다렸다는 듯, 그의 부인 유희정 여사

가 배시시 웃으며 우리를 한껏 반겨준다. 그리고는 들어서자마자 이미 준비한 점심상을 푸짐하게 차려주신다.

순수 양념한 육회 진미, 분위기가 하도 좋아 나는 난생 처음 그날 농장에서 기른 부추김치, 깻잎 등에 싸서 육회를 시식하는 기회를 가졌다. 잇달아 나오는 양념 돼지 갈비구이에 우리는 모두 연신 맛있다며 한참을 달려온 시장끼를 신나게 해결했다. 수박에다 참외, 체리 등도 잊지 않고 나왔다. 풍광좋은 농장에서 배까지 채우니 더 이상 부러운 게 없었다. 남은 것은 이야기꽃.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다 보니 집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이전구 회원은 한 주에 두 세번씩 농장에 와서 꽃나무나 야채 등에 물을 주고 풀을 뽑고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이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



“농장에서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일년내내 해서 거둔 수입 하면, 내가 운영하는 골프샵에서 하루 이틀 버는 매상도 안 된다. 오로지 내가 한 번 해보고 싶었던 꿈을 이루기 위한 작업이고, 몸을 움직여 노년에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정말 그는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다고 그런 큰 일을 벌였을까. 그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고 비즈니스도 성공하고 자식들도 잘 키웠고 노후에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이래 저래 참 복이 참 많은 사람이다.

늘 웃으면서 긍정적인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이전구 회원 부부. 두 분의 삶이 앞으로도 농장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펼쳐지기를 기원해 본다.

남는 건 사진 뿐, 우리는 어린애들처럼 그가 사들인 땅고르기용 트랙터(7만불 주고 살 때 사용법을 배웠는데 막상 집에 와보니 안돼서 그냥 놔두고 있다는) 위에 올라 신나게 사진촬영을 하고 아쉬운 작별인사를 고했다. 훗날 이 농장을 다시 찾았을 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그의 계획대로 일본 목련이 150미터 정도 걸어 들어가는 입구 양쪽 길에 정말 아름답게 피어있을까? 생각해보니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았다.

암에 관한 단상

■ 오용호 (의대66)

암은 사람을 괴롭히고 끝내는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사람에게 가장 흔한 치명적 질환이다. 그동안 인류는 암의 정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여 괄목할만한 성공을 이루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암의 정복을 위해선 가야 할 길이 멀다. 암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암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을 구사하여야 한다. 다행히 암의 종류에 따라서는 암을 예방함으로써 암을 피해 갈 수 있는 암이 있고 어떤 암은 현재 인류가 개발해 놓은 방법에 의하여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치료가 가능한 암도 있다.

우선 예방 가능한 암이란 어떤 암들이 있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은 유방암이 아니라 자궁경부암이었다. 그러나 주기적인 자궁 경부의 Pap smear의 대대적 적용으로 pre-cancer 나 초기상태의 암을 발견함으로써 이 암으로 인한 사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현재는 이 암의 원인이 HPV라는 바이러스라는 것이 밝혀져 사춘기 소녀들에게 바이러스 백신을 놓아주어 영구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은 유방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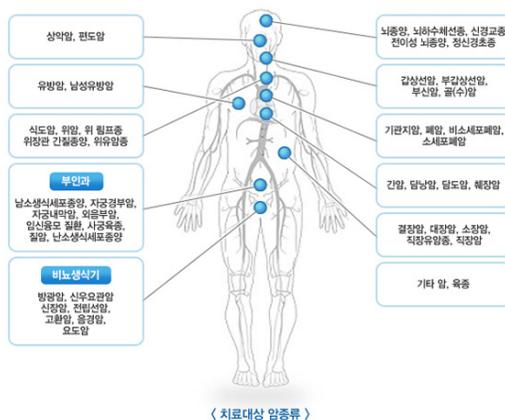
데, 이 유방암 중 5-10%는 가족역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유방암과 난소암에 관여하는 이상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고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빈도높게 상기 암이 발생함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유방과 난소를 제거하여 미연에 암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수년전에 여배우 Angelina Jolie가 자기의 유방과 난소를 미리 제거하여 큰 뉴스거리를 제공하였는데 그 바탕에는 이 이색 유전자를 발견한 후 취한 조치였다.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은 폐암인데 이 암은 흡연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은 진작부터 잘 알려져 있고 금연을 함으로써 그 빈도를 현격히 줄일 수가 있다. 한 때 한국 남성에서 위암, 폐암 다음으로 많은 암이 간암이었는데 간암의 원인 중 가장 흔했던 것이 바이러스 간염 그 중 B와C형 간염이었는데 이 둘을 치료하거나 억제하는 약이 90년대 이후 개발되었고 그리고 동시에 이 바이러스들의 백신이 개발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 병으로부터의 공포에서 해방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술과 간지방으로 인해 간경변이 생기고 더 나아가 간암으로 발전하게 됨으로 각자가 조심하면 간암 예방은 가능하리라 본다. 그러면 어떠한 암들이 치료 가능한가 알아보자.

현재에도 한국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흔한 암은 위암이다. 위암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H Pylori bacteria와의 연관성, 술, 짠 음식 등과의 연관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예방은 안되지만 조기위암을 발견하여 절제하면 거의 100%

에서 완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장암도 조기 발견하여 절제하면 거의 100%에서 완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위암과 조기 대장암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는 내시경 검사로 가능한데 장년 이후의 한국 사람이면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그리고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 충분하리라 본다. 여성에서 가장 흔한 유방암도 정기적인 유방 촬영으로 조기암을 발견함으로써 방사선 치료나 수술적 제거로 쉽게 암을 대처할 수 있다.



< 치료대상 암종류 >

폐암은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과거에 흡연을 오래 많이 한 사람들을 폐암 위험군이라 부르는데 (하루에 한 갑씩 20년이상 피운 사람 혹은 반 갑씩 40년이상 피운 사람) 이들은 정기적으로 가슴 CT검사 (일년에 한 번 이상)를 받아서 폐암을 조기에 찾도록 해야 한다. 폐암도 조기 발견하여 조기 절제하면 완치할 수 있다.

남성에 많은 전립선암은 그 원인을 모르므로 예방 또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노력을 조기암을 찾는 데 쏟아야 한다. 다행히 이 암을 의심케 하는 선행지표인 혈

액내의 PSA를 검사하여 유의하며 이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정밀 검사를 하여 조기 전립선암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혹은 일년에 두 번 정도 장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PSA를 추적 검사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주위의 많이 흔한 암들은 본인이 조심하고 부지런하면 암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여 암을 퇴치할 수 있다. 그러나 암 중에는 예방도 안 되고 조기 발견도 안되는 암들이 있다. 예를 들면 요즈음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췌장암(이유라면 기존의 흔한 암들이 이제는 어느정도 관리가 잘 되고 사람의 수명이 늘기 때문)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견 당시 수술로 절제가 안되고 간혹 절제 가능성이 있어 절제를 해도 대부분 3년 이내에 재발한다. 또 뇌암도 예방과 조기 발견이 쉽지 않고 설령 조기에 발견했다 해도 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서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악성인 경우가 많아 절제를 해도 재발이 많다. 또한 앞에서 열거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암이라 해도 너무 늦게 암 진단을 받아 모든 치료 수단을 동원해도 소용없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본다.

이런 암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현명한가? 이 때는 환자와 가족의 결단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포기하는 결단이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치료를 받으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고 많은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고통만 가져올 수 있다. 안타깝지만 포기가 최선인 경우인지 모르겠다.

회원 명단 (116명 / 2023-7-25)

강교숙	김병순	박희병	유무영	이행순	최준희
강에드	김상만	배상규	윤선구	이홍빈	최진영
강영선	김승호	성기로	윤상영	임도혁	최철용
계동휘	김영덕	손갑수	윤종숙	임창호	최학주
고애자	김영만	손경택	윤현남	임호순	추재욱
곽상준	김우영	손대홍/	이강홍	정도현	한영수
곽선섭	김익성	남종현	이민제	정수일	한응오
곽승용	김인형	손옥화	이상무	조달훈/	한태진/
구달희	김정필	송근숙	이승준	조승자	안용희
권문웅	김종윌	송현자/	이 준	정해민	한용웅
권정덕/	김창수	송학린	이대연	조상근	허유선
홍선경	김치갑	송혜순	이대영	주상선	홍사만
권영대	김태일	신진식	이영범	주재양	홍정표
권태전	김한중	신응남	이용대	진봉일	홍지복
김영천	김현중	신응남	이전구	천병수/	홍종만/
김광수	김용면	오순문	이종대	천종화	홍예경
김광현	민준기	오용호	이종석	최구진	
김동건	박기환	오유섭	이준행	최병우	
김문경	박상원	오인석	이준희	최수용	
김문언	박준구	우규환	이태호	최순채	

골든클럽 2023년 행사 일람 (2023-7-25)

1월	22~28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8명 참가)
2월	9일(목)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16명 참가)
4월	1일(토)	신년교례회 - KCC Tenafly, NJ
	13일(목)	Hiking -Harriman Park (8명 참가)
	20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32명 참가)
5월	18일(목)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Split Rock Golf Club (41명)
	25일 (목)	Kaaterskill Fall 방문 (21명 참가)
6월	8일(목)	Golf Outing - Walkkill Golf Club (28명참가)
7월	13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NJ (30명 참가)
8월	10일(목)	Golf Outing - Walkkill Golf Club, NY
	16일 (수)	Zoom Seminar - Well Dying
	17일(목)	골든클럽 피크닉
9월	14일(목)	Golf Outing- Pelham Golf Club,NY
10월	12일(목)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1월	2일(목)	Golf Outing
12월	2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10일-16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16일(토)	신년교례회

2023년 연회비 납부 명단 (84명 / \$8400 /2023-7-25)

강교숙	김익성	박희병	신진식	이종대	최병우
강에드	김정필	배상규	오순문	이종석	최수용
강영선	김창수	성기로	오용호	이행순	최순채
곽선섭	김치갑	손경택	오인석	이홍빈	최준희
곽승용	김태일	손갑수	우규환	임도혁	최철용
권영대	김한중	손대홍	윤상영	임호순	한영수
권정덕	홍선경	남종현	윤선구	정수일	한응오
권태전	권문웅	손옥화	이대연	정해민	한태진
계동휘	김영천	송용길	이대영	주상선	한용희
김광현	김상만	송현자	이상무	조달훈	한용웅
김동건	김종윌	송근숙	이승준	조승자	홍선경
김문경	민준기	송학린	이영범	진봉일	홍정표
김문언	박기환	송혜순	이용대	천병수	홍종만
김병순	박상원	신두식	이전구	천종화	홍예경

2023년 후원금 기부 명단 (26명 / \$11,280/2023-6-25)

강에드 200	김치갑 80	오용호 300	최수용 1000
권정덕 300	김한중 200	우규환 200	최순채 100
김영천 300	성기로 500	윤선구 200	최철용 400
계동휘 500	손경택 1500	이전구 1000	최철용 200
김광현 200	신두식 200	이행순 200	한태진 500
김문경 200	신진식 300	임호순 300	홍종만 1000
김종윌 200	오순문 200	정해민 1000	

2023년 입회비 납부 명단

신두식 200 이영범 200 박상원 200 윤상영 200 이승준 200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2023-6-25)

이준행 2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Zelle: 201-965-7759 Jay Kim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주소 (Home):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201-965-7759 (Jay Kim)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8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곽상준 (약대55) 홍종만 (공대64)
- 김상만 (법대52)
- 김한중 (의대56)
- 남종현 (가족)
- 윤현남 (공대64)
- 이대연 (약대65)
- 정해민 (법대55)